

20여년이 넘게 지난 지금-우리는 생존자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당신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낍니다" 라는 감정 이입적인 표현이 있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준 세월을 압축시켜 하루 전과 같이 느끼게 해 주는 힘이 있다. 이 세월동안, KAL 007기 격추 당시 소년이었던 사람이 어느새 젊은이로 성장하여 그 당시 KAL 007기 승객이었던 어머니에게 처해졌던 운명을 알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그는 이 탐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웹사이트를 찾아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20여년이라는 세월은 전혀 긴 시간이 아니다. 나이 18세 이하 어린이들 22명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다. 셀리타 추아포코 (Celita Chuapoco) 는 현재 나이 23살이고, "어린" 스테이시 그렌펠 또한 23살이며, 크리스타 게엘 메트칼프도 그러하다. 크리스타의 언니인 리타 데니스 메트칼프는 27살이다. 그레햄 박, 24살, 가장 어린 새미 아리에델은 현재 20살이다. 이들은 모두 어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있던 것을 뒤집었던 놀라운 반전이 최근에 일어났다. 이제껏 믿어온,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 가설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객기가 2대의 미사일을 맞고 폭발하여 파괴되어 버렸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단 하나의 미사일만이 여객기 50미터 후미 쪽을 맞추었으며, 이에 비행기는 속도를 계속적으로 낮추어 4분 동안 16,424피트 높이까지 내려와 비행하다 느린 하강을 계속하여 작은 모네론 섬 근처를 넓게 선회 비행하여 내려온 것을 안다. ([파괴로부터의 탈출](#)을 보라.)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친척들과 친구들-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미사일 폭발로 인해 갈갈이 부서져 버렸거나, 고통스러운 질식이나 공포, 심장마비, 또는 익사(추정 추락 장소에서는 시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로 모두 사망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의식이 명확했던" 그 일 분동안 모든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승객들과 승무원들 (무엇보다도 천 기장) 이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사일의 유산탄으로 인한 상처를 모두 합쳐 보아도 여객기 표면에 입은 손해는 단지 1평방피트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다! ([After the Impact](#) 를 보라.)

러시아인들은 "우리는 그것 [KAL 007] 이 추락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원수)" 라고 주장했었고, 우리는 그들이 했던 말을 믿어왔다. 그러나 실제 시간 소련 군사 대화 전사 자료를 획득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작은 모네론 섬의 몇 마일 정도 되는 반경 내에 KAL 007기가 어디서 하강하고 있는지, 어디 착륙했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오시포비치 소령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21분에서 29분 사이 두 대의 공군 해군 구조 임무대를 파견했었다.
(구조를 보라.)

그리고 우리는 현재 - K.G.B 수반 케브리코프, 국방장관 유스티노프 등과 같은- 소련 최고 관리들 사이의 일급 비밀 메모에서 소련이 일부러 미국 수색/구조 작전을 기만하여 소련 또한 KAL 007기를 찾고 있는 것처럼 미국인들과 전 세계가 믿도록 유도했음을 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이미 그 불시착한 비행기를 찾아 그 안을 모두 비워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만으로 인해 전시 상황 핵폭탄 모의 공격까지 치닫는 것을 보았다. ([소련 일급 비밀메모와 KAL 007, 미국 7 함대, 그리고 대 러시아 계약](#)을 보라.)

그리고 우리는 현재 러시아 연방이 몇몇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소련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그리 터무니없거나 뻔뻔한 주장이 아님을 알며, 미 국적 소지자들과 다른 외국 국적 소지자들이 러시아 연방 땅 어딘가에 강금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최근 우리는 이전 소련 연방에 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노예와 같은 강제 노동하는 외국 노동자들이 목재/건축 강제 노동 수용소에 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30,000명에 가까운 북한인들이 러시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있다.) ([KAL 007 생존자들과 러시아 연방의 강제 노동 수용소](#)을 보라.) 우리는 이들 수용소가 중국과 시베리아 지역 국경 지역을 따라 위치해 있는 바로 그 틴다와 아무르 강 지역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 곳에서 - 네르친스크, 네르친스키 자보드, 치타 지역외 다른 지역들 근처- 십 몇년 전에 KAL 007기 생존자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들은 바 있다.

이 격추, 구조, 그리고 역동적이었던 사건 결정 과정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은 사건 모든 디테일에 가득차 있던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상상과 가정들 뿐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각자의 맹렬한 열정과 선호 가치를 가진 두 소련 장군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볼 수 있다. 먼저 KAL 007기가 공해 상에 있는데도 격추를 명령했던 극동관구 공군 사령관 발레리 카멘스키 장군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침입" 비행기가 민간 여객기인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던 그의 주장을 인지한다. 그리고 카멘스키 장군의 부관인 소콜 지역 사령관 아나톨리 코르누코프 장군이 비행기가 공해 상에 있는 동안 불편한 심기로 비행기 격추를 지켜보았던 것을 알며, 마침내 그를 목인해 버린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 먼저 비행기 정체 파악을 하라던 카멘스키 장군 명령에 그가 조바심내며 성급해 했음을 안다. ([KAL 007가 어떻게 길을 잃었나 와 파괴로부터의 탈출](#)을 보라.)

이렇게 많은 세부 사항들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은 여전히 강금 상태이다!

현재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충분한 사실이 이미 새어나와 알려졌다다는 것이다. 많은 정보가 충분히 명백해지고 투명해져 그 동안 기만당해 온 사실에 강한 분노를 느끼게 하며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집으로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강한 의지 또한 심어 준다. 우리는 한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관련

국가들과 민족들, 그리고 미국에서 상위 권위당국들이 이 일을 완전히 조사하고 검토하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버트 솔로스버그
국제 위원장